

# 한일협정 50주년 ‘위안부·강제징용’ 숙제 해결부터

### 불교계 단체,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잇달아

한일수교 50년을 맞아 불교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센터 ‘광주 나눔의 집’ 소속 피해 할머니들은 6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과 함께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양한석(故 김순덕 할머니 아들), 왕상문(故 최선순 할머니 아들) 등 9명이 참석했다.

소송대리인인 김경진 변호사는 “일본은 정권 교체마다 입장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은 7월 중으로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쓰비시중공업 등 2차대전 당시 전범기업, 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2천만 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피해액 보상보다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사과하면 소송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위안부 피해

는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라며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고령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중심이 된 문화재환수연대(공동대표 이상근)와 시민단체들은 6월 23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위안부 피해자 “日 반성 없어”**  
**2000만 달러 국제 소송 진행**  
**강제징용자 “군함도 등재 NO”**  
**조건부 협의한 韓 정부 비판도**

을 열고 일본의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반대 입장과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을 7월 1일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이상근 문화재환수연대 대표는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과 원만 등재를 전제 하에 협의의 중에 있다.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 협의의 내용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발할 수



불교계 단체인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6월 23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유산 심사가 열리는 7월1일부터 7일까지 독일 현지에서 산업시설 등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며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는 시설의 유네스코 등재는 어떠한 조건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97세의 김한수 피해자 할아버지와 93세의 공재수 피해자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1944년 8월 당시 26세의 나이에 황해도 연백에서 강제 징용당해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배치된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다. 1945년 8월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폭을 당하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그 곳에 현재도 일본인 희생자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 한국인들의

무덤은 일본인 애완용인 개와 고양이 무덤가에 초라히 섞여 있다”며 “그나마 일본의 양심있는 교수들이 희생자들의 무덤을 만든 곳도 최근 도로가 나며 외딴 곳으로 이전됐다. 일본은 아직도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번에도 첫 단추를 잘못 꿴다”며 “민족의 침략과 수탈사는 조건부로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일간의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 반성과 사과,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Cool한 여름, 전통 문양 부채로

### 문화사업단, ‘본디나 전통 부채’ 4종 공개

#### 범종·단청 등 전통 문양 패턴화 여름 템플스테이 참가자에 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의 불교 문화 상품 전문 브랜드 ‘본디나(VONDINA)’가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특별한 기념품으로 전통문양 부채 4종을 선보인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절에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던 풍습대로, 사업단은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한지로 제작된 전통부채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디나의 전통부채는 아름다운 불교문화유산에서 추출된 다양한 전통문양이 적용됐다. 범종, 불교 아이콘, 사천왕 화관, 단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4종의 디자인이 개발됐으며, 오는 7월부터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총 8,000개의 전통부채가 배포될 예정이다.

‘범종 부채’는 범종의 몸체에 새겨진 화

려하고 상서로운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불교 아이콘 부채’는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탑, 대웅전, 일주문, 사천왕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유산을 아기가자기한 아이콘 형태로 재탄생시켰다.

화려한 장식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사천왕 화관 부채’는 사천왕의 장신구인 화관(花冠)을 패턴으로 재구성했다. 불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연꽃과 국화, 모란 등의 꽃 장식과 구름, 불꽃 등을 압축하여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다.

‘법주사 단청 부채’는 법주사 대웅전의 연화머리초 단청을 단순화하여 그 수려함을 극대화시켰다. 단청의 오방색인 청색, 적색, 황색, 흑색, 백색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한 문화 자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콘텐츠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두루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불교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선보인 전통문양 부채 4종. 여름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제공된다.

## 고려 정권과 불교, 상관 관계는

### 조계종 불교사회학 ‘고려 정치권력과 불교’ 세미나

고려시대 정치권과 불교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시도했는지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고려시대의 정치권력과 불교’를 주제로 2015년도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국가와 왕실, 무인정권 등이 불교계를 우대하는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 취한 정책을 검토하고, 그런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했던 결사 불교가 다시 정치권력과 연결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검토한다.

박윤진 교수(고려대)가 ‘고려정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를 주제로 승정을 통한 불교 통제, 보호와 통제의 양면적 관계, 국가와 관료 사이의 불교계에 대해서 발표

한다. 강호선 교수(성신여대)는 ‘왕실 불교 의례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고려시대 왕실이 주관한 주요 불교의례를 개관하고 이런 의례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다.

박영제 교수(서울시립대)는 ‘결사 불교와 정치권력’을 주제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행공동체를 지향했던 결사 불교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계기 및 그로 인한 결사의 변화 양상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사회연구소가 추진하는 한국 호국불교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12월 개최될 2차 학술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불교의 정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 조계종노동위, 24일 성명서 발표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 故김종원, 고이지혜 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조계종노동위가 정부에 순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 이하 노동위)는 6월 24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순직을 인정하므로 두 교사가 수학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법 해석으로 순직 처리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순직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9명의 교사 중 기간제 교사 2명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불인정한다 바 있다. 박익를 기자

## 사명대사, 임란 포로 귀환 활약상 ‘생생히’

〈분충서난록〉 한글본 발간  
회담·왜장과 편지 등 담아  
무용·설담 스님 문집도 펴내  
“문화사적 중요 기초 자료”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로 일본에서 3000명의 포로를 송환한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회담과 포로송환에 도움을 준 일본 측 인사에 보낸 감사편지 등을 기록한 〈송문대사분충서난록(松雲大師奮忠 難繼錄)〉이 그것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6월 22일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3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사명당 유정 스님의 〈송문대사분충서난록〉을 비롯해 무용당 수연(無用堂 秀演,



1651~1719) 스님의 문집인 〈무용당유고(無用堂遺稿)〉와 설담당 자우(雪潭堂 自優, 1709~1770) 스님의 문집인 〈설담집〉이다.

〈송문대사분충서난록〉은 사명당의 문집인 〈사명당집〉에 수록되지 않고 따로 전해져 오다가 영조 15년(1739) 밀양 표충사에서 간행한 책이다. 회담 보고서, 상소문,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인 포로 송환을 교섭할 때 도움을 준 일본 불교계 장로에게 보낸

서신, 스님의 공포에 대한 조야 명사와 지방지에 전하는 사적기(事跡記) 등도 함께 모았다.

〈무용당유고〉에는 무용(無用)을 통해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추구했던 무용당 스님의 시 65수, 서(書) 10수, 서(序) 4수, 모연문(募緣文) 6수, 상량문 1수, 기 3수, 발 5수, 계 3수, 제문 3수 등이 수록돼 있다. 불교학술원은 “본 번역서는 문화사적 맥락이나 불교사적 맥락에서 그 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담집〉은 설담당이 여러 대덕과 문도, 관찰사와 수령, 선비들과 교류하며 주고받은 시와 간찰 등을 모은 문집이다. 수록한 글 중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 명승지 여행기인 〈몽행록〉은 이봉경로와 옛 지명, 풍광에 대한 묘사와 시적 감상은 물론 대면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노덕현 기자

**마하연 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순례 출발 가능한날짜: 8월19,29 / 9월16,19 / 10월7,17,28 / 11월7,14,18**

**특전**

1. 특급호텔(양곤-세도나호텔,바간-뜨레져호텔,만달레이-세도나호텔,헤호-후핀호텔 등 동급진행)
2. 추가경비 일체 없음
3. 미얀마 전문 가이드 동행 및 미얀마 현지 불교전문 가이드 진행
4. 일정 및 식사 타사비교 필수
5. 미얀마 현지 불교 행사 진행 가능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정상가 2,09,0000 → **조기예약 할인가 1,89,0000**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몽유와 7일 요금문의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뽀띠야 7일 요금문의

《 미얀마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투어만의 알찬 일정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황산/양주 5일

[관음도량] 양주/보타/낙간산 5일

상해/양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 상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 백두산 5일

**인도 11일**

델리-비르나시-보드기아-리즈기르-바이살리-나만다-쿠시나기르-볼리나-키릴라키르-쿠탄-신키시아-아그라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람블라-시기리아-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티벳 6일**

상도-라싸-임드록초-간체-시기체

티벳핵심하늘일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기체-라싸-난주역-하늘일차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